

연구소 소식

2023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4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저출생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가 각 지역의 육아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를 하였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환영사로 개회를 하였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중앙-지방 보육정책의 유기적 보육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맞춤형, 개별맞춤형 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맞춤형 지역보육컨설팅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보육 정책은 인구유입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정책팀장은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의 출산·양육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위해 설계한 출산·양육정책을 민선 7기 및 민선 8기로 나누어 소개하고, 2021년 전년대비 출생아수 전국 1위 증가율을 나타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인경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황지수 교수, 충남연구원 전지훈 책임연구원,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정정희 회장이 참여하였다.



2023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2023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유아교육·보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주제로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의 유아교육·보육에 가져올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개회사와 환영사를 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유아교육분야 SW·AI 활용 전략 탐색: 국내의 동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의 안전과 윤리적 쟁점 및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유아를 위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에 관한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은 ‘해외국가들의 유아교육 디지털 정책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G20 국가 조사 주요 결과, ECEC in a Digital World 주요 결과 및 해외 정책 사례를 발표하였다.



2023년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5월 1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실,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주최로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위한 기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정해구 경제인구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와 환경부를 대표하여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축사가 있었다. 기조강연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탄소중립과 돌봄'을 제목으로, 글로벌 연결망에 의한 기후피해 현황과 원인, 2030년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 전략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실장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요구: 영유아부모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부모 1,012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연구위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유아 기후변화 적응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 및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우즈베키스탄 Agency of Preschool Education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4월 26일(수) 오후 3시 30분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청(Agency of Preschool Education) 방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과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청(Agency of Preschool Education) Deputy director(부청장)인 Nodir Muslitdinov, Khurshid Buriyev 고문관이 참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은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2021년 협약을 갱신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육아정책연구소의 경험과 관련 연구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청(Agency of Preschool Education)의 장학요원 연수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odir Muslitdinov 부청장은 2023년 1월에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교육부가 통합되면서 산하기관으로 유아교육청(Agency of Preschool Education)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알렸고, 교사교육,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구축, 영유아교육·보육 질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을 위해 향후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청(Agency of Preschool Education)은 2022년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합의한 장학요원 연수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덴마크 Design School Kolding 국제 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5월 2일(화) 오후 3시 30분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Play Design for Young Children'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과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와 덴마크 Design School Kolding의 Helle Marie Skovbjerg 교수, Jess Uhre Rahbek 교수, Sofie Kinch 교수가 참석하였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레고재단, 레고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덴마크 놀이 디자인 관련 전문가와 함께 양국의 아동 놀이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감사함을 전했다.

Helle Marie Skovbjerg 교수, Jess Uhre Rahbek 교수, Sofie Kinch 교수는 Design School Kolding의 Lab Design for Play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Can I Join in?', 'Playful learning research' 등을 소개하였다. 아동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성과 다양한 놀이의 유형을 고려하여 놀이를 디자인(Designing Play)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세미나를 계기로, 육아정책연구소와 덴마크 Design School Kolding 전문가팀은 향후 아동 놀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결과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브리프 공동발간 등 관련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패널 세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5월 19일(금) 오후 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의 2023년 국제학술대회에서 KICCE 패널 세션을 개최하였다. 본 세션의 주제는 ‘유아교육에서의 다양성 지원 정책과 실제(Policies and practices to support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로 다문화유아의 이중언어교육 및 관련 교사교육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패널세션은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4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홍콩 교육대학의 케빈 청(Kevin Kien Hoa Chung) 교수, 벨기에 겐트대학의 미셸 밴덴부룩(Michel Vandebroek) 교수와 Brecht Peleman, 일본 세이난 가쿠인 대학의 리요 카도타(Riyo Kadota) 교수, 그리고 본 연구소 박원순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박원순 연구위원은 ‘한국 이민가정의 유아기 적응 문제(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adaptation in Korean society for immigrant families)’라는 제목으로 국내 이주민 가정과 유아의 적응문제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 긴급돌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비용 지원, 개별 아동보다는 가족중심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제4차 국제웨비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14일(수) 오후 3시 30분 레고재단(The LEGO Foundation)과 '부모 인식 개선과 놀이 역량 강화(Fostering playful parent: Bridging the gap in parents' perception and empowering engagement in play)'를 주제로 제4차 '놀이를 통한 배움(Learning through Play)' 국제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본 웨비나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장인 조숙인 연구위원과 레고재단 선임 연구전문위원인 Patricia Castanheira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의 Sirene Lim 교수와 Cynthia Lim 교수, 호주 아동옹호기관인 Early Childhood Australia의 CEO Samantha Page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조숙인 연구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어머니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관점 차이(Gaps between perspectives of Korean mothers and their children on play)'를 소개하였고, 부모는 놀이장소와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반면 아동은 함께 놀이하는 대상, 특히 가족과의 놀이 시간을 원하는 데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Results

Mothers' demands for supporting children's play



제3회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동향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데이터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제3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책수립에의 활용 강화를 위하여 2021년 데이터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을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본 콜로키움은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박상희 소장,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배운진 데이터연구센터장 등 연구직원들과 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최현수 연구위원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통계청 통계등록부 연계 공동 구축 및 활용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공동 구축 및 활용 거버넌스 제안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관련한 동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가구단위 정책분석 데이터 구축 방안과 생애주기 및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공동 구축과 더불어, 활용 거버넌스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이외에도, 육아정책연구에 필요한 여러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제고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